

April 22 최고의 사명, 사랑에 충성하기

• 요한복음 21:15-18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실체가 다 드러났는 데도 그를 찾아가 다시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부름 받을 때의 사명과 동일합니다(마 4:19). 모두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혹 주님이 이미 사명을 주셨는데 망각한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일터, 사역 등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위치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제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세 번이나 확인하십니다. 한번은 감정적으로 답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를 ‘다 소모하거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만 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다 소모하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자연적 기질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과 사랑과 능력이 나와 내 사명을 지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선택’하지 않고, 그 사랑에 ‘헌신’합니다. 그 사랑에 충성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선택하려고 하면 또다시 실패하고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 ❶ 사명과 사역에 몰두합니까, 힘을 다해 사랑합니까?
- ❷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와 사명은 무엇입니까?